불교 스마트쉼 운동본부 발족한다

불교상담개발원 11월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출범식

스마트폰 · 인터넷 중독 예방
70여 불교계 사찰, 기관 동참
관련 설문조사 및 현황분석도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디지털 시대, 날로 늘어나는 스마트폰과 인터넷 중독을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해 불교계가 나섰다.

불교상담개발원(상담원장 가섭, 조계종 포교부장)은 11월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불교 스마트쉼 운동본부 출범식을 개최한다.

출범식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정책관 오용수 국장 등이 참여하고 기독교를 대표하여 양병희 한국기독교연합 증경대표회장, 한국가톨릭문화원장 김민수 신부가 참석할 예정이다.

불교 스마트쉼 운동본부에는 중앙종무기관으로 조계종 포교원과 총무원 기획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 등이 참여하며, 포교단체로는 포교사단,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동련, 신도단체로는 중앙신도회, 대한불교청년회, 전국교사불자연합회, 사회복지기관으로는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이외에 불교교육연합회와 조계종 디지털 대학, 불교계 주요언론사가 함께 한다.

불교계는 정부의 스마트폰, 게임, 인터넷 중독 예방의 움직임에 맞춰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주무를 맡은 불교상담개발원은 7월 3일 스마트쉼 전문강사를 배출한데 이어 중독 예방교육 표준강의안을 만들어 보급했다. 지난 2016년부터 3회에 걸쳐 약 60여 명이 과의존 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을 수료하였고, 이 중 진흥원으로부터 10명이 예방강사에 위촉된 바 있다.

향후 불교스마트쉼운동본부는 '스마트쉼 사찰'을 선정해 법회와 기도 등 사찰행사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일시 중단하고, 생활 속에서 디지털 중독을 완화하는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이날 출범식에 이어 기념세미나도 열린다. 기념 세미나에서는 최두진 한국정보화진흥원 디지털문화본부장의 '스마트폰 인터넷 과의존 현황 및 정책' 발표가 진행된다. 이어 가섭 스님의 '스마트폰 과의존의 불교적 해석' 발표도 이어진다. 가섭 스님은 "괴로운 느낌에서 벗어나는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감각적 쾌락의 즐거움에서 환락을 찾는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과의존의 원인을 찾을 예정이다.

또 지난 2018 연등회 전통문화마당에서 표집한 325부의 성인, 유아, 청소년 대상 스마트폰 과의존 경향 실태조사 중 297부를 분석하여 함윤서 HB 뇌과학연구소장이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분석 및 불교계 대응 전략'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이다.

불교상담개발원장 가섭 스님은 "일상생활에서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의 활용이 늘어난 만큼 중독 증상 또한 증가하고 있다. 중독을 벗어나는 가르침이 불교 내에 있고 이를 불자 부모들을 비롯해 사회 각계에 적극 알려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02)737-7378

하상욱 시인과 떠나는 수험생 템플스테이

화성 용주사 12월 1~2일, 남양주 봉선사 12월 8일

대학수학능력시험 준비로 오랜 시간 노력한 수험생들에게 힘을 북돋는 특별한 템플스테이가 열린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경)은 화성 용주사 · 남양주 봉선사와 함께 2019학년도 수능 수험생들을 응원하는 나눔템플스테이를 마련했다. 먼저 화성 용주사는 12월 1~2일 선착순 100명을 대상으로 1박2일 템플스테이를 실시한다. 템플스테이서는 조선 제22대왕 정조의 리더십을 배워보고, 스님과의 차담과 명상을 통해 마음챙김 연습을 할 수 있다. 또한 하상욱 시인 강연도 진행된다.

12월 8일 남양주 봉선사에서는 당일형 템플스테이가 진행된다. 공부로 지친 학생들을 위한 사찰음식 만들기 체험,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는 광릉숲 걷기명상 등을 즐길 수 있다. 이날 역시 하상욱 시인의 강연도 진행된다.

용주사 템플스테이는 선착순 100명에 참가비 3만원, 남양주 템플스테이는 선착순 300명에 참가비 무료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원경 스님은 "템플스테이가 지친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풀고, 마음의 힐링을 가져다주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템플스테이는 참가자들을 위한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한다. 사찰에 전화로 사전예약을 하면 각 사찰당 선착순 85명까지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용주사 템플스테이 (031)235-6886, 봉선사 템플스테이 (031)527-9969

윤호섭 기자

"정부-종교, 성평등 정책 마련에 관심을"

조계종 미래세대委, '미래세대 성평등' 주제 토론회

올해 초 불거진 미투운동 촉발로 성평등이 사회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불교계가 미래세대의 성평등을 위한 토론에 나섰다.

조계종 미래세대위원회(위원장 심산)는 11월 14일 서울 견지동 전법회관 3층 회의실서 '미래세대의 성평등을 말한다'라는 주제로 출범 1주년 기념 2차 대화마당을 개최했다. 대화마당에는 변신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수, 현민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활동가, 조승미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강사, 홍혜은 비혼지향생활공동체 공덕동하우스 대표 등이 참여해 청년세대가 겪을 수밖에 없는 성차별 문제 현황과 대안 등을 토론했다.

변신원 교수는 "한국의 성평등 수준은 국가 발전수준과 비교해 현격한 격차를 드러내며, 젠더의 문제에 관한 전근대적 의식에 머무르고 있다"고 진단한 뒤 △노동권 문제에 젠더 문제가 포함돼야 함 △전 국민 대상 성 인권 교육 △여성 리더십 개발 위한 정책 마련 △성평등한 매체 생산 권장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편 미래세대위원회는 오는 28일 오후 2시 '미래세대의 정책과 지원을 말한다'라는 주제로 3차 대화마당을 개최할 예정이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부석사관음상, 韓·日 해법 찾기 나선다

봉안위 등 11월 24일 부산서 토론회

서산 부석사에서 조성돼 일본 대마도로 반출됐다가 한국인 도굴꾼으로 인해 국내로 반입된 부석사 금동관세음보살 관련 갈등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한국과 일본 전문가의 토론회가 열린다.

서산부석사금동관세음보살제자리봉안위원회(이하 봉안위)와 문화재환수국제연대는 11월 24일 오후 1시 부산국제 라이온스 클럽 별관에서 '서산부석사금동관음상 제자리봉안을 위한 한 · 일연구자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김문길 한일문화연구소장(부산외대 명예교수)와 히로세 유이치(廣瀨雄一) 前 부산여대 교수의 제안으로 만들어졌다.

토론회는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관음상의 거취 문제와 함께 '한일양국 공동 유산으로 삼자'는 제3의 제안까지 토론 주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한국 측 발표자로는 김문길 소장이 나서며 일본 측 발표자로는 이가라시 아키라(五十嵐彰) 도쿄도매장문화재센터 연구원이 참여한다.

지정토론자로는 한국 측에서는 부석사관음상 소송 대리인인 김병구 변호사, 〈서산부석사관음상의 눈물〉 저자인 김경임 前 튀니지 대사가, 일본 측에서는 모리모토 가츠오(森本和男) 오사카경제법과대학 교수, 저널리스트 칸노 도모코(菅野朋子) 씨가 참여해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토론회를 주선한 김문길 소장은 "문화재 반환은 조성 내력, 유통 경로, 취득 경위, 소장자와의 상황, 외교적 관계, 국제사회 입장 등에 따라 해결 방법이 다르며 '부석사관음상'은 이런 점에서 사례로서 가치도 충분하다"며 "토론회를 통해 상호간에 진지한 성찰과 방안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해인사 대장경 · 희랑대사상, 서울 이운

국립중앙博, '대고려전' 앞두고 10일 이운행사



국립중앙박물관과 해인사는 11월 10일 해인사 고려대장경판과 고려 태조 왕건의 스승인 건칠희랑대사좌상 이운행사를 개최했다.

고려 건국 1100주년을 맞아 해인사 대장경판과 희랑대사상이 서울로 이운됐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배기동)과 해인사(주지 향적)는 11월 10일 해인사 고려대장경판과 고려 태조 왕건의 스승인 건칠희랑대사좌상(보물 제999호) 이운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이운행사는 고려 건국 1100주년을 기념해 오는 12월 4일부터 내년 3월 3일까지 열리는 고려의 문화를 조명하는 특별전 '대고려-2018 그 찬란한 도전'의 사전행사로 진행됐다.

대고려전에 전시될 고려대장경과 처음으로 산문을 나와 1,000년 만에 그 모습을 일반인들에게 선보이게 될 희랑대사좌상을 해인사에서 국립중앙박물관까지 예를 갖춰 모시고 오기 위해서도 필요한 의식이다.

해인사 주지 향적 스님은 "고려 팔만대장경은 한국불교에만 있는 법보이며, 목판인쇄기구로서 양과 질을 놓고도 우리나라에만 있는 보물 중에 보물"이라며 "이번 대고려전을 통해 고려 팔만대장경을 친견하며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평화통일을 앞당기는 기회가 되길 발원한다"고 밝혔다.

배기동 국립중앙박물관장은 "대장경과 희랑대사상을 전시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신 해인사에 감사드린다. 대고려전을 성황리에 열어 많은 사람들이 친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北 김정은 위원장, 연내 '서울' 오나?

조계종 민추본, 11월 29일 53차 월례강좌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원택, 이하 민추본)는 53차 월례강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답방 가능할까요'를 11월 29일 오후 7시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3층 문수실서 개최한다.

앞서 9월 평양공동선언 기자회견 자리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울 방문의사를 밝힌 데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안에 김 위원장을 초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가운데 전문가들은 종전선언과 2차 북미정상회담 등 향후 과제를 논의하고, 유엔 대북제재가 남북경협사업의 위협요인이 될 것이라 우려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 민추본은 이번 강좌를 통해 4차 남북정상회담의 전망 및 과제를 짚어보고, 평화와 통일을 위한 상생의 해법을 모색한다. 강사로는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가 나선다. 김 교수는 해군본부 전투발전단 해군전략개념과장과 국방부 대북협력정책담당 등을 역임했다. (02)720-0531

김지원 기자 jayjace@hyunbul.com

연등시공전문기업 대광불교
연등자동승강장치 최초개발시공업체
대광불교는 연등전문 기업입니다. 대광불교만의 독특한 디자인과 숙련된 노하우로 각종 연등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항상 등불을 밝히는 마음가짐으로 등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화등
공단등
만월등
연등 자동 승강장치
연등 시공
자동승강장치 특허
자동승강장치 특허
절첩식 연등 특허
LED 전구
대광불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13 e-mail : hskhsg@naver.com | 010-9446-1862 | 010-2788-7270 | 031)768-7270 | 031)768-7271